

도시색채경관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City Colorscape

이 혜 주

중앙대학교 교수

Hye Joo Lee

Professor Chung Ang University

* 본 논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도시색채디자인의 이론적 접근

- 2-1. 도시디자인
- 2-2. 도시색채디자인

3. 도시색채경관 사례분석

- 3-1. 분석방법
- 3-2. 도시환경분석
- 3-3. 사례분석

4. 종합적 분석

- 4-1. 런던
- 4-2. 파리
- 4-3.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최근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확보한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선진국 요건 중 도시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되고 있다. 창조적 소프트 시티(soft city) 구축은 다만 거주민 뿐 아니라 방문객, 나아가 투자자 유치를 가능하게하여 지역 고부가가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의 고유의 문화적 품격을 통한 아이덴티티 구축은 물론 트렌디한 감각을 통한 지속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정서적 효율적 방안의 하나로서 도시색채디자인이 도시마케팅을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문화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 도시로서 상호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런던과 파리의 색채경관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도시색채디자인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두 도시의 경우 강조색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성화 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도시의 환경, 기후, 역사, 문화전략에 따라 색조 차별화가 나타났다.

주제어

도시색채경관, 도시브랜드, 도시색채디자인, 도시브랜드리사이클링, 런던, 파리

Abstract

City color design has become a crucial design element for adding both emotional and functional value to a city's image. The addition of a creative 'soft' touch for cities contribute not only to the marketing strategy for the city itself, but eventually enhances the nation's image as well, leading to an increase in tourism and investments. In this thesis, London and Paris have been selected for researching as benchmarks to establish a city's color design strategy.

Keyword

city colorscape, city brand design, city color design, city brand recycling, London, Pari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도시 디자인은 당 시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 등 시대상을 반영하여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 작용에 속에서 발전한다.(이현수, 2002) 특히 21세기 '문화의 시대' 에서 색채경관은 도시의 이미지 결정에 매우 중요한 복합적인 시각적 정보 메커니즘을 지닌다. 도시경관과 환경을 인지하는 방법은 대체로 원거리 조망에 의해 파악되므로 텍스트보다는 시각조망에 의한 형태나 색채에 의해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색채디자인은 안전은 물론 정서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예술적 차원의 정서 함양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다. 또한 도시에 아이덴티티를 제공하고 '장소성' 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상징적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기호성과 함께 문화코드로서 생정적 차원을 가진다.(이혜주, 권수경: 2008)하는 역할을 한다. 색채경관의 성격과 경관의 관점에서 그 정의와 유형분류에 관해 색채아이덴티티를 통한 공간환경 선진화는 글로벌 경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 강화의 가시적 경제효과를 가져온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도시환경색채는 특징이 없고 무질서하거나 색채의 부재로 삭막한 경관을 보여줄 뿐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다는 것이 정평이다. 더욱이 각 도시들이 유사하여 어떤 지역특성과 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색채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여기서 도시색채디자인 연구방법에 있어서 각 도시의 독창적인 장소성과 특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색채경관에 대해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구조적 과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학술적 논문에서는 특히 유럽의 도시색채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의 보고서에도 간단한 분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에서 문화도시로 평가되고 있는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도시의 색채경관 이미지를 실제 방문하여 관찰하고 차별화된 색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도시색채디자인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이론적 연구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고찰하였다. 공간적 연구범위로서 연구대상 지역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선정하였으며 방법적 연구범위로는 도시색채디자인의 기본 분류방법인 기초색, 주조색 보조색(1차 보조색, 2차 보조색), 강조색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도시 선정 기준으로는 첫째, 유럽의 문화를 리드하는 대표적 국가로서 특히 20세기 특징적 도시문화 창출을 통해 도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국민 개인소득 4만불 이상의(Atlas Method: 2009)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대표적 도시 둘째, 인구가 한국의 인구분포가 유사한 국가의 수도 셋째, <표 1> 과 같이 21세기 이후 인지도가 높은 도시(런던이 1위, 파리 2위) 넷째, 감성적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문화스타일 창출도시 다섯째, 환경적 요인(자연, 민족성, 문화, 인문, 인공)이 상대적으로 차별화되고 도시디자인정책에서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대표적 2개 도시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 7월에 15일 동안 방문하여 대표적 사례를 선정하여 실제 측정하거나 직접 500장을 찍었다. 그리고 교수, 전문가 등 5명의 색채전문가와 함께 대표적 색채사례를 선정하여 펜톤, RGB, CMYK로 분석하여 경관 색채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1 > 도시인지도조사

도시 인지도조사	
City Brand(2006)	런던 2위, 파리 3위
Beauty Parade(2006)	파리 1위, 런던 4위
stylish city(2008)	런던 1위, 파리 2위

<출처:www.citybrandindex.com, www.forbes.com>

2 도시색채디자인의 이론적 접근

2.1 도시디자인

도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아이덴티티 형성이 중요하고 타도시와의 차별화된 도시의 상징적 경관 요소로서의 색채경관을 확립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색채경관형성 예방문화의 도시로서의 색채경관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도시환경을 판단하는 근거는 도시를 구성하는 환경요소의 형태, 색채, 텍스처를 통해서 지각하고 확인한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환경 요소로 형태에 앞서 색채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게 된다. 그 이유는 형태보다는 색채의 자극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면서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을 들여 고칠 수 있는 관리 개선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시디자인은 2006년 서울시가 “21세기는 모든 것이 디자인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어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디자인의 전면적 혁신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2008년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는 서울색의 현상색, 지역색, 대표색을 추출하고 서울의 기초색과 상징색을 규정하여 경관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대전, 부산 등 타도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반면, 유럽의 선진도시디자인의 경우 오랜 도시디자인 전통에 부응하며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 등 폭넓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창의도시 디자인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도시디자인의 최우선 목표는 개성있는 도시 아이덴티티 구축에 있다 하겠다. 일본의 도시계획자 다무라 아키라씨에 따르면 도시의 개성은 경관, 풍속 및 생활, 축제(이벤트, 의식), 건물과 공원, 맛, 예술 및 특산물, 지역민의 표정 및 말투의 7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지적하였다. 20세기 중반이후 영국의 도시디자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의 진화과정을 인식할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폐허의 도시복원의 도시의 ‘재건(Reconstruction)’ 둘째, 1960~70년대의 세계 금융 및 보험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재개발(Redvelopment)’ 셋째, 1980~90년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생(Regeneration)’ 넷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건축 및

도시의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르네상스(Renaissance)' 등으로 진화되어 왔다. 재건과 재개발이 '사회기반시설의 양적 확장'에 초점을 둔다면 '재생과 르네상스'는 기존 시설의 질적 향상을 통한 효율성에 집중하는 목적을 지닌다.(김정후, 2008) 또 도시디자인 목적은 공동체 형성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장소판촉 전략(place marketing)과 관련 있는데 이는 특정지역을 먼저 개발한 후 이것을 지렛대로 연쇄적 발전을 유도하며 도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재활성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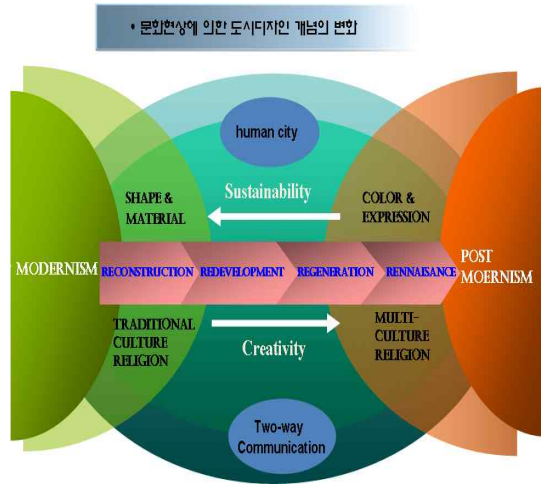
2.2 도시색채디자인

세계의 위대한 건축물들은 모두 색채로서 풍요롭게 장식되었다.(박재승역, 1996) 한 실험에서는 사람이 물체를 보았을 때 자극의 강도는 최초에 색채가 80%, 형태가 20% 이었다가 약 5분후 색채와 형태가 반반이 된다고 한다. 색채를 건물, 설비, 집기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1930년대 미국의 듀퐁(dupont)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후 구미 각 국에서는 색채역학(color dynamic), 색채공학(color engineering), 색채계획(color planning) 등의 말로 쓰이고 있다.(박도양, 1989) 프랑스는 이미 70년대 감각적 신세대에 부응하여 도시색채디자인을 시도하였는데 프랑스의 최초의 도시 컬러리스트로 불리는 장 필립 랑크로(Jean-Philippe Lenclos)는 "건축만을 단독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 며(이혜주:2008) 60년대 산업화에 의해 프랑스 환경이 조악해질 뿐 아니라 도시문화의 다양성도 소멸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각 지방에 다니면서 소재샘플을 직접 수집하여 시각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지역마다 종교 등 모든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제시, 지역문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다.(Jean Philippe Lenclos, 1991) 그는 도시컬러에 종교적 고려를 포함한 모든 문화적 요인이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Jean Philippe Lenclos, 1999) 도시색채디자인은 딱딱한 건물을 부드러운 인상으로 창출할 수 있으며 지하공간 등에는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효율적 정서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형태에 앞서 색채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관리 개선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자연과 인공 구조물 등의 형태와 색채에 의해 결정되어지겠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색채경관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문화현상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도시색채디자인은 도시경관의 시각적 질을 파악하고 도시이미지의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 에서와 같이, 더욱이 근대사회에서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탈근대사회(post-modern society) 로 바뀌면서 색채에 대한 개념은 다양성과 개성화를 지향하게 되어 감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색채디자인이 상업권역 뿐 아

니라 도시이미지를 대표하는 지하철, 기차역, 공항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시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는데 동원되고 있다.

<그림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비적 특성



3. 도시색채경관 분석

3.1 분석방법

프랑스의 컬러리스트인 랑크로는 최초로 도시 경관색채에 대한 체계적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방법으로는 첫째, '관찰'을 통한 현장분석 둘째 색채구성요소의 '시각적 분석'으로 분류하여 고찰, "색을 바르는 목적은 보호뿐 아니라 색채자체의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한국경제매거진, 2010) 그는 지역, 기후, 건축과 자연색채를 분류하여 직접적인 색채샘플을 수집 분석하였고 색채도표를 근거로 해당지역의 색채 사용지침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근래에 와서 일본의 후쿠오카 경관계획 색채유도의 기본적 방향은 첫째, 사람들을 생동감있게 한다 둘째, 저층부는 자유롭게 고층부는 스카이라인을 중시한다. 셋째, 지역의 개성을 살린다 넷째, 양감을 줄인다 다섯째, 인공물의 자연변화에 배려를 한다 여섯째, 테마별로 색채를 유도한다 일곱째, 이미지를 유도한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18) 등으로 규정하였다. 기본적으로 경관색채 양태는 거리에 따라서 원경색(landscape color), 중경색(townscape color), 근경색(streetscape color), 근접색(sign color) 으로 구분된다.(장준호역, 1991) 본 연구에서 측정방법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기초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으로 분류,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초색은 기본적으로 원경색에 해당하는 하늘, 산, 들, 땅 같은 지역의 특성을 부여하는 자연환경색을 의미한다. 주조색은 중경색

으로서 기본적으로 도시의 색채를 지배하는 건축색을 의미한다. 도시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건축물의 색채이며 그 배색은 바로 도시 이미지로서 인식된다.(광주광역시, 2005) 보조색은 이러한 건축색을 보조하는 색상을 말하며 1단계는 조화 2단계는 대비로 나타난다. 강조색은 주로 근접색에 해당하며 건축물 외관의 부속물, 세부형태나 요소, 공공 및 사적 간판,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 식재 등을 뜻한다.

3.2 환경분석

3.2.1 런던

영국의 수도인 런던¹⁾은 32개 자치구와 City of London으로 구성되었으며 2004년 영국정부의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에 따라 발전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런던에서 의미하는 지속적 성장이란 최고수준의 도시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런던은 2012년 올림픽을 계기로 21세기를 리드하는 세계적 문화수도로 발전하려는 야심찬 목적을 갖고 '런던문화수도(London Cultural Capital Realising the Potential of World Class City, 2004)'를 수립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문화가 프랑스와 다른 점은 계층간, 혹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특히 팝아트 예술양식의 발상지로서 20세기를 빛내주는 비틀즈, 엘튼존, 미닉스커트, 보이조지 등 혁신적 대중적 문화를 창출해왔으며 이는 도시에도 반영되고 있다. 더욱이 1997년 영국 수상 토니블레어가 국가이미지를 젊은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Young Britannica" "Cool Britannica" 슬로건을 창안하였고 "영국을 21세기 디자인으로 부흥시키자"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의 디자인 공장'으로 대체시키자"고 강조하였다. 창조산업(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UK, 2006)을 지향하는 정부의 "살기좋은 도시(city for people)" 구현을 통한 강력한 신디자인 정책과 더불어(www.london.gov.uk/mayor/asian_london/index.jsp) 도시디자인 개선을 통해 문화경제 효과를 창출, 경제 부흥을 도모해왔다. 20세기 후반이후 영국의 도시정책의 방향의 전환은 과거의 "좋은 혹은 보다 나은 디자인(Good or Better Design) 추구"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넘어 "디자인의 질을 추구"하는 차원으로 전환하였다. "뉴 어버니즘(New

1) 영국의 수도로 잉글랜드 남동부 템스강 하구에서부터 60km 상류에 위치해있으며 기원후 5~6세기 경 이후 앵글로 색슨족 노르만족이 이주하였다. 비와 안개가 대표적 이미지로 떠오를 만큼 맑은 날씨를 찾기 어렵다.

Urbanism)" 또는 '런던 플랜(London plan)'의 방향은 여러 자치구와 연계, '공간통합적'이고 '다핵중심'의 전략이다. 런던은 파리와 같이 전통양식을 보전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첨단인 혁신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개방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기존 템스강 남쪽의 낙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이다. 나아가 다문화(London Development Agency, 2006) 및 팝아트 같은 아방가르드 문화를 도시에 접목시키면서 창조적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런던 플랜(London Plan)을 통해 2006년 '권역별 발전계획(SRDFs: 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을 수립해 보완하고 있으며 나아가 런던을 '창조수도-세계도시'로 만들기 위한 'Creative Capital World City' 전략에서는 고급예술 혁신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3.2.2 파리

파리²⁾는 나폴레옹에 의해 구축된 최초의 근대도시계획 발상지로서 건축에 있어 과거의 가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철저하게 도시의 미관을 관리하는 도시로 전통적 환경적 색채디자인을 토대로 관리해왔다. 70년대 도시컬러리스트를 배출한 이후, 파리는 특히 새로운 색채의 기호소비자인 신세대에 출현 및 여성역할의 사회적 향상(장 필립 랑크로, 2007) 등 시대성과 맞물려 도시환경에서의 색채디자인을 시스템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의 색채디자인을 직접 적용 실험하였으며 일찍이 교통시스템에 색채를 도입한 바 있다. 파리의 혁신성은 모더니즘 상징인 에펠탑을 위시하여 20세기 이후 낙후지역 리사이클링을 통해 붕괴두미술관, 라빌라메 등 색채를 과감히 도입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을 리드하는데 성공하였다. 파리는 전략적으로 대규모 도시재생계획인 GPRU(Le Grand Projet de Renouveau Urban de la Couronne Parisienne)의 전략은 파리지 경계에 있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11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회, 경제, 문화, 생태적 차원에서의 상호관계를 재구성해 공공공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수행하였다. 또한 파리는 패션도시라는 이미지를 살려 상업권역을 중심으로 과감한 강조색을 도입, 전통거리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03년에 '창작의 수도, 파리

2) 프랑스 수도로서 프랑스 일드프랑스주에 속해있다. 동경 2° 21' 07", 북위 48° 51' 24"에 위치되어 있으며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며 여름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평균기온은 10℃이다.

(Paris, la capitale de la création)도시'를 전략화 하였 (www.paris.fr/FR/actualites/capitalecreation/default.htm) 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세계적 개방적 콜라버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세계적 문화창조 중심지를 지향하는 거대한 도시정비시스템인 '르 그랑 파리(Le Grand Paris)'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50년 지속해온 도시환경을 탈피하여 '파리를 미래의 경제 허브' 로 조성하는 목적을 지닌다.

3.3 사례분석

3.3.1 런던

<표 2>는 런던의 색채경관을 기초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분류하여 대표적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표 3>은 런던의 도시색채경관을 펜톤, RGB, CMYK로 분류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3.3.2 파리

<표 4>는 파리의 대표적 색채경관을 선정하여 기초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분류, 분석한 자료이다. <표 5>는 파리의 도시색채경관을 펜톤, RGB, CMYK로 분류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4. 종합적 분석

4.1 런던

주조색은 파리에 비해 다양한 색상이 융합된 전통적 주택형태를 지니며 전통 건축물에도 대리석, 돌, 벽돌 등 다양한 토속 재료색채의 전통을 지닌다. 다양한 토속벽돌색, 검정과 흰색 블루계열과 흰색, 대리석 소재의 저채도의 N계열, YR 계열 등을 지닌다.보조색 및 대비색으로는 다양한 전통색조에 부응하는 고채도, 중채도의 R계열, YR계열, 검정의 조화, 대리석 소재색상 등에 따라 세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성적 색채이미지를 지닌다.

<표 2> 런던 대표적 색채분석



강조색으로는 북유럽 기후 및 문화를 반영하듯이 강한 색채대비 이미지를 지닌다. 전통적 주조색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유입에 의한 다양한 순색의 R, P, B, G 등을 수용하고 있다. 런던의 색채이미지는 단단한(strong, deep, heavy,hard) 한 특징을 지니며 복합적이며 동적 분위기를 창출한다. <표 6>은 런던의 도시색채경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4.2 파리

파리의 주조색으로는 통일된 전통재료 색채가 도시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전통건축의 색조인 저채도의 YR계열, 중저채도의 N계열로 일관되어 있다.

보조색으로는 밝은 회색조의 주조색에 부응하는 환경색과 전통색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표 3> 런던 색채측색 분석

신치분식	측색장소	색상	펜톤	RGB	CMYK
	런던				
기조색			7544C	149/160/169	10/1/0/40
			7498C	63/75/0	25/0/100/80
			504C	87/29/31	65/100/100/35
			420C	220/221/222	0/0/0/15
			Cool gray 5C	190/192/194	0/0/0/29
주조색			364C	56/124/44	65/0/100/42
			440C	63/62/41	82/76/100/30
			492C	181/83/65	0/70/66/30
			7501C	241/227/197	0/4/20/6
		7524C	188/109/80	0/55/60/27	
		7528C	232/223/209	0/3/10/10	
1차 보조색			Black C	38/28/2	0/13/49/98
			7499C	255/246/220	0/2/15/0
			7503C	200/177/139	0/12/35/25
			419C	3/24/13	29/0/36/100
강조색			5807C	240/240/217	2/0/14/3
			17885C	240/81/51	0/84/88/0
			286C	0/93/170	100/66/0/2
			186C	227/25/55	0/100/81/4
		109C	255/222/0	0/10/100/0	
		2395C	185/48/146	27/95/0/0	
		361C	84/185/72	69/0/100/0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구성하고 있는 전통적 건축물로서 주조색조에 부응하는 색채디자인을 보여준다.

또 주조색에 조화되는 밝은 YR계열 N계열의 색채디자인을 보여주며 환경색에 따른 중채도의 G계열 저채도의 B계열, 저채도의 YR계열을 보여준다. 지붕은 통일되어 어두운 저채도의 PB, B Gray계열이다. 강조색으로는 일반적으로 지중해성 기후 및 낙천적 가벼운 문화의 영향에 의해 런던보다 부드럽고 밝은 파스텔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N계열의 밝고 가벼운 톤의 YR계열 그리고 상업권역에는 주로 트렌디한 밝은 색조로 전통건물과 대비되면서도 부드럽고 화사하고 따뜻하며 산뜻한 파스텔 등의 N계열 및 YR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표 4: 파리의 대표적 색채 분석>

파리 기조색 분석

파리 주조색 분석

파리 1차 보조색 분석

파리 강조색 분석

파리는 전체적으로 가볍고 선명하며 부드러우면서(light, moderate, clear, soft) 상대적으로 조화와 통일감을 부여하며 세련된 감각과 정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표 7>는 파리의 도시 색채경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표 5> 파리색채측색분석

색채분석	측색장소	색상	펜톤	RGB	CMY K
	Paris				
기조색			644C	135/17 8/216	42/15/0/6
			7529C	217/20 7/192	0/4/12/17
			286C	0/93/17 0	100/66/0/2
			5743C	52/70/1 3	33/0/85/82
주조색			371C	79/111/ 25	43/0/100/5 6
			7497C	129/12 9/84	40/30/70/2 5
			7530C	185/17 1/150	0/8/21/32
			435C	220/20 9/205	13/15/15/0
보조색			7503C	200/17 7/139	0/12/35/25
			Warm Gray 1C	239/23 3/229	0/2/3/6
			426C	39/36/3 7	0/0/0/99
			7518C	126/84/ 58	0/40/55/60
강조색			7547C	22/41/5 2	35/4/0/94
			5225C	210/18 8/195	17/25/15/0
			412C	39/17/0	0/30/66/98
			410C	135/11 6/106	0/18/21/56
강조색			2925C	0/150/2 15	85/24/0/0
			187C	196/18/ 48	0/100/79/2 0
			3295C	0/141/1 27	100/0/53/2 1
			123C	255/19 6/37	0/24/94/0
			398C	19/181/ 234	69/7/0/0
			225C	235/82/ 157	1/83/0/0
			2613C	108/32/ 126	63/100/0/1 5

4.3 영국과 파리의 종합적 배경분석

런던과 파리는 미래의 '창조적 문화도시'를 향해 매우 경쟁적인데 다양한 전공분야와의 콜라베이션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색채관리의 경우 문화를 통한 차별화, 감성화, 고급화를 전략적으로 추구하여 도시의 문화감성적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그 세부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기 다른 풍토, 기후 등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문화현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색채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통합적 관점에서 다민족의 다문화 현상을 새로운 세대의 아방가르드 예술문화와 접목시켜 지속적인 첨단문화의 발상지로 창출하여 도시 아이덴티티 확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셋째, 특히 상업지역에 글로벌 패션상권의 유치는 물론 자동차 전시관을 색채트렌드 적용을 통해 스트리트 색채문화를 강화, 도시문화 활성화 전략을 펴하고 있다. 넷째, 낙후지역의 리사이클링 전략을 수행하여 우범지역을 문화지역으로 변환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장소성(placement)'을 창출 지역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 는 두 도시의 색채브랜드전략을 도출한 것으로 도시문화의 대비적 요소를 흡수하여 지속적인 브랜드확장을 추구하는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표 6> 런던 색채경관의 종합적 분석

구분	내용
기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색 : 저채도부터 중채도에 이르는 YR • 하늘색 : 우기가 많아 저채도의 B, BG계열로 분포 • 산림색 : GY계열부터 BG계열 분포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속적인 R, YR계열 • 저채도의 YR계열, 검정의 조화 • 석조 건축물의 N계열, 저채도의 YR계열 등 소재 색상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유사한 R, YR계열 • 저채도의 YR계열, 검정의 조화 • 석조 건축물의 N계열, 저채도의 YR계열 등 소재 색상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건축물 저층에 주로 사용, 도시의 활력소 역할 • 일반적으로 고명도·고채도를 사용하나 중·저채도의 P, R, GY계열 등이 사용되기도 함 • 새로운 건축물 소재(타일, 유리 등)에 의한 소재대비

<표 7> 파리 색채경관의 종합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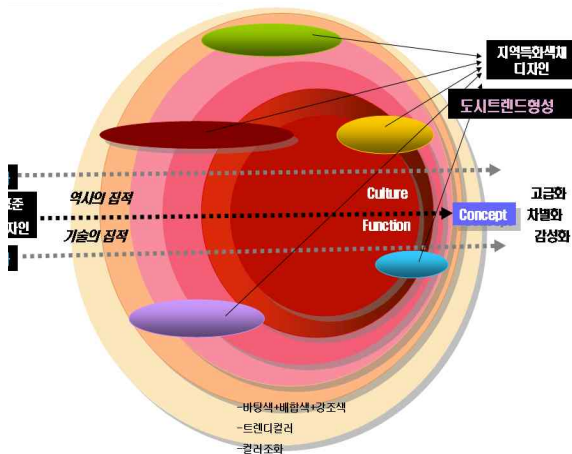
구분	내용
기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색 : 저채도부터 중채도에 이르는 YR계열, 중채도의 N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늘색 : 겨울 우기의 N계열에서 B계열에 이르는 색조, 여름 지중해성 밝고 가벼운 B계열 산림색 : GY계열에서 G계열에 이르는 다양한 색조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건축물의 밝고 가벼운 N계열, YR계열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과 유사한 YR계열, N계열 환경색과 유사한 중채도의 G계열, YR계열의 색상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련된 P계열, 어두운 톤의 R계열, BG계열, 중채도의 B계열 파스텔톤의 감각적 색채대비, P계열, RP계열, 밝은 GY계열 외관을 엄격히 규제, 주로 인테리어에서 강조색 사용

<표 8> 런던과 파리의 배경 분석

	영국(244820 km ²)	프랑스(547030 km ²)
국기		
사상	자본주의, 경험주의적, 문학 연극발달	주지주의, 실증적
국민성	합리적	낙천적, 감각적
사건	산업혁명 발상지,	프랑스 혁명,
특징산업	과학, 첨단산업, 유통, 서비스산업, 디자인	농업, 원자력, 우주항공, 패션
문화	자연주의, 미술공예운동, 팝아트, 비틀즈, 보이조지, 디자인, 창조산업,	인상파, 입체파, 미래파, 다다이즘-초현실주의, 패션, 디자인
문화환경	보수와 진보의 복합문화, 영연방 국가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	추상과 보편성의 복합성 일찍이 예술진흥정책으로 세계의 예술활동 진결,
수도	런던	파리
도시디자인	전통성 유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전통성 유지에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
	대중문화, 다양성 및 창의인재 개발에 중점	고급문화구축 및 창의인재 개발에 중점
도시재생	문화대비 및 대중문화 특성화	전통성 유지 및 고급문화 특성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문화행사, 이벤트, 축제, 시민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문화행사, 이벤트, 축제, 시민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표 8>는 런던과 파리를 환경 문화적 배경을 비교하여 분석한 표이다. <표 9>는 런던과 파리의 종합적인 차원에 경관색채를 분석한 자료이다.

[그림 2] 런던 및 파리의 도시색채디자인 전략 분석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런던과 파리를 선정하여 2009년도 방문을 통해 '관찰'함으로써 경관색채를 고찰하였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도시의 색채디자인의 방향은 문화정체성과 문화역동성이 상호공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확고한 전통적 기반의 도시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지만 개방적 차원에서 도시 아이덴티티 확장을 이루는 양면적 대비현상을 보인다. 최근에는

도시의 인상을 좌우하는 기차역에도 전통의 모습과 모던한 색채를 코디네이션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시 리사이클링 전략에서는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도시 산업화로 야기된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자연 발생적 대중문화현상을 팝아트로 재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색채도 다소 거칠고 원초적이지만 활력이 넘쳐흐르는 지역문화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경우에는 낙후지역에 새로운 세련된 첨단문화 단지로 건설하여 글로벌한 신문화양식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을 위해서는 전통환경적 첨단 문화적 차원에서는 파리의 사례, 주민밀착형 전략과 아방가르드 문화차원에서는 런던의 사례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유럽의 대표적인 2개 수도를 선정하여 20여 대표적 지역을 토대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도시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다른 국가의 도시와의 비교는 물론 특징적 문화

를 지니고 있는 중소도시, 아울러 도시내의 지역별로 세분화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표 9> 런던과 파리의 종합적 색채 분석		
	런던	파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색채가 다양함 보조색: 전통적, 환경적, 색채에 부응하여 유사색 대비색 등 다양한 색조 대비 강조색: 중심지, 문화특성화 지역에 현대적 팝아트의 자유로운 강한 색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세이후 유사한 전통색 관리 유지 보조색: 전통적 환경적 주조색에 부응하여 밝은 유사색조 추구 중심지까지는 부드러운 밝은 파스텔색조의 강조색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부의 기후, 흐린날이 많고 서늘함 상대적으로 습기 많음 지역에 따라 토지색이 다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프스 산지를 제외하고 지중해성 상대적으로 맑고 건조한 더운 여름 상대적으로 유사한 토지색 
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속적 건축물 패턴인 beige, white, black & white, 혹은 black & dark blue, red-brown, light-dark grey, beige tone, 등 다양함 중세이후 beige, white 색상폭이 넓고 다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중세 이후 건축물 색조 light-medium beige, light-medium grey tone, 전체적으로 밝고 유사한 색조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이 다양하여 배합 색인 보조색조도 다양한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이 유사하여 보조색조의 범위가 좁은 편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색대비 전통색 환경색에 의한 색조 대비 시대적 신소재 건축물에 의한 소재대비 문화특화지구의 예술 색채대비 트렌디한 강한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색조대비, 특화지구 제외 하고는 상대적으로 유사대비 주로 전통색 및 환경색에서 추출한 유사색조대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지중심 및 문화특화 지역 신소재 대비강함 개성적 강한 팝아트색 조명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지 중심 및 문화특화지역 신소재대비 약함 (에펠탑제외) 파스텔색조 조명색 
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시대적 문화를 반영, 보다 다양하고 강한 색채대비 추구, 매장 및 지역문화특징에 따라 세분화, 개성화 색채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으로 전통적 보수적 통일적인 유사색채추구, 시가지 중심의 매장 쇼윈도를 통한 강조 색채 추구
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strong, deep, heavy, hard 다양한, 복합적, 강한, 동적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light, moderate, clear, soft 통일적, 유사한, 부드러운, 세련된, 파스텔, 정적 이미지

또 본 논문이 도시색채디자인 교육은 물론 국내도시의 국제적 차별화를 위한 실제 적용을 위한 방법적 연구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2008), 『경기도 브랜딩 로드맵 및 지역브랜드자산평가모델구축 연구』

광주광역시(2005), 『도시경관기본계획』 광주광역시

김정후(2008), 해외리포트, 『영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시사점』 110 참고

대구광역시(2002), 『도시경관 기본계획』

박도양(1989), 『실용 색채학』 서울:이우출판사.

박돈서(1996), 『건축의 색, 도시의 색』 서울:기문당

박재승역(1996), 『건축의 색채디자인』 서울:단우, 6

이현수(2002), 『도시경관색채의 디자인 원리』 한국 색채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이혜주의(2006), 『감성경제와 Brand Design Management』 서울:형설

이혜주(2008), 『감성적 도시컬러브랜드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마케팅 전략의 개념적 접근』, 제27집, 52

이혜주, 권수경(2008), 『환경도시의 공공마케팅을 위한 도시컬러브랜드디자인 연구』 중앙대 생활문화산업 연구소, 제 27집

장준호역(1991), 『환경색채디자인』 서울:도서출판 국제

한국경제매거진(2010), 제44호, www.magazine.hankyung.com

한국디자인진흥원(2007), 『우리나라 공간환경 선진화를 위한 색채아이덴티티 활용사업의 사전기획연구』 79

Jean Philippe Lenclos, 김기환역(1991), Geography of Color, 서울:도서출판국제, 6

Atlas Method(200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orld Bank

Jean Philippe Lenclos외(1999), Colors of the World, NY:W.W. Nortons&Company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UK(2006)

London Development Agency(2006)

www.magazine.hankyung.com

www.london.gov.uk/mayor/asian_london/index.jsp

www.citybrandindex.com, www.forbes.com

www.paris.fr/FR/actualites/capitalecreation/default.htm

장 필립 랑크로(2007 참고), 컬러디자인